

2015 국가직 7급 한국사 ⑤책형 (2015. 08. 29. 토 시행)

해설 : 신영식·박성근·김준형 교수

문 1. 일본 정창원(正倉院)에서 발견된 신라 민정(촌락)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호구와는 달리 전답 면적의 증감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 ② 인구는 남녀를 망라하여 연령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누었다.
- ③ 촌락을 단위로 소와 말의 수 및 뽕나무·잣나무·호두나무의 수까지 기록하였다.
- ④ 서원경 부근 4개 촌락의 주민 이름, 성별, 나이와 노비의 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1. 정답 : ④

해설 : 신라 촌락문서는 조세 수취와 노동력 징발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이다.

④ 신라 촌락문서에서는 해당 촌락의 전체 주민 수를 성별과 나이에 따라 6등급으로 분류하고 노비의 수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하지만 이름이나 나이를 표기하지는 않았다.

① 전답의 경우에는, 전답의 종류와 면적만 기재되어 있을 뿐 증감과 관련한 기록은 없다.

② 인구는 남녀를 망라하여 남자 6등급(소자, 주자, 조자, 정남, 체공, 노공), 여자 6등급(소여자, 추여자, 조여자, 정녀, 체모, 노모)으로 분류하여 연령에 따라 나누었다.

③ 신라 촌락문서의 조사 대상은 호구 수, 인구 수, 전답의 면적과 종류뿐만 아니라 수목(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의 종류와 수, 가축(소, 말 등)의 종류와 수, 특산물 등을 조사하였다.

문 2. 괄호 안에 들어갈 역사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양에서는 역사학이 정책을 입안하는 데 이론적 근거와 참고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되었다. 동양에서는 역사학의 제1차적인 목적을 귀감에서 찾는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역사책은 ‘거울 감(鑑)’자를 쓴다. 우리나라에서는 서거정이 편찬한 (), 중국에서는 사마광의 자치통감, 주희의 통감강목, 원주의 통감기사본말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 ① 성리학적 가치관으로 고려 역사를 정리한 기전체 사서이다.
- ② 단군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노래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 ③ 단군조선에서 삼한까지의 역사를 외기(外紀)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 ④ 역대 국왕의 사적(事績) 가운데 후세의 귀감이 될 만한 내용만을 뽑아 편년체로 편찬하였다.

2. 정답 : ③

해설 : 제시된 자료의 괄호 안에 들어갈 역사서는 서거정, 이극돈 등에 의해 성종 16년(1485)에 편찬된 『동국통감』이다.

③ 『동국통감』은 고조선에서 고려에 걸친 통사로 외기·삼국기·신라기·고려기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단군조선에서 삼한까지의 역사를 외기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 ① 세종 28년(1446)부터 김종서와 정인지 등이 세종의 명을 받아 편찬하기 시작하여 문종 원년(1451)에 완성한 『고려사』에 대한 설명이다.
- ② 충렬왕 13년(1287)에 이승휴가 편찬한 『제왕운기』에 대한 설명이다. 하권의 「동국군왕개국연대」에서 단군부터 후고구려, 후백제, 발해사까지를 7인시로, 「본조군왕세계연대」에서는 고려시조부터 충렬왕까지의 역사를 5인시로 서술하였다.
- ④ 조선 시대 편찬된 『국조보감』에 대한 설명이다. 『국조보감』은 조선 시대 역대 왕의 업적 가운데 선정만을 발췌하여 편찬한 역사서이다.

문 3. 밑줄 친 ‘이 제도’에 해당하는 것은?

처음에 임금이 의정부의 권한이 무거운 것을 염려하여 이를 개혁할 생각이 있었으나 정중히 여겨 서늘지 않았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 이 제도를 단행하니, 의정부에서 관장하는 것은 오직 사대문서(事大文書)와 무거운 죄수를 다시 살펴보는 것뿐이었다.

- ① 상피제
② 6조직계제
③ 초계문신제
④ 의정부서사제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3. 정답 : ②

해설 : 제시된 자료는 조선 시대 태종과 세조 대에 실시된 6조직계제에 대한 설명이다. 태종과 세조는 왕권을 강화하고 신권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6조 직계제를 실시하고 의정부의 기능을 사형수의 재결이나 사대문서 관장 등에만 국한시켰다.

문 4. 다음 사건이 있었던 국왕 대의 역사적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임꺽정은 양주의 백성으로 성품이 교활하고 또 날래고 용맹했으며 그 무리 10여 명이 모두 날래고 빨랐다. 도적이 되어 민기를 불사르고 소와 말을 빼앗고 만약 이에 항거하면 살을 베고 사지를 찢어 몹시 잔인하게 죽였다.

- ① 회령에서 니탕개(尼蕩介)가 반란을 일으켰다.
② 문정왕후의 불교 숭신으로 선교 양종이 다시 설치되었다.
③ 세경선의 감소로 곤란을 겪던 왜인들이 전라도를 침범해 왔다.
④ 척신과 권신들은 많은 노동력을 투입하여 해택지(海擇地)를 개간하였다.

4. 정답 : ①

해설 : 제시된 자료는 조선 시대 명종 대에 경기도와 황해도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한 임꺽정의 난에 대한 내용이다.

- ① 니탕개의 난은 선조 16년(1583)에 회령을 중심으로 여진족의 니탕개가 일으킨 난이다.
② 문정왕후는 명종의 모(母)로 명종이 왕위에 즉위하자 수렴청정을 실시하고 승 보우를 신임하여 불교를 숭상하고 불교의 부흥을 위해 선교 양종을 부활시키고 승과제도와 도첩제를 다시 실시하였다.

③ 명종 10년(1555)에 세건선의 감소로 인해 왜인들이 전라도를 침범하는 등 을묘왜변이 발생하였다.

④ 명종 대에 문정왕후의 수렴청정과 척신 정치가 자행되면서 척신들에 의한 수많은 비리와 함께 도지 탈집 등을 통한 도지 집적이 나타났다. 이들은 해안가에 독을 쌓아서 간석지를 조성하여 농지를 확대하는 해택지 개발 등의 방법을 통해서 농장을 확대하기도 하였다.

문 5. 다음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했던 단체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는 일본 강도 정치 곧 이족(異族) 통치가 우리 조선 민족 생존의 적(敵)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우리는 혁명선언으로 우리 생존의 적(敵)인 강도 일본을 살벌(殺伐)함이 곧 우리의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하노라.

- ① 박재혁이 부산 경찰서를 공격하였다.
- ② 김상옥이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 ③ 강우규가 사이토 총독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 ④ 나석주가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을 공격하였다.

5. 정답 : ③

해설 : 제시된 자료는 신채호가 의열단 김원봉의 요청으로 작성한 「조선혁명선언문」이다.

③ 강우규는 노인동맹단 소속이다.

① 의열단 소속의 박재혁은 1920년 9월 부산 경찰서에 투탄하여 하시모토 서장을 폭살하였다.

② 의열단원 김상옥은 1923년 1월에 종로 경찰서에 투탄한 후 군경과 총격전 끝에 자결하였다.

④ 의열단원 나석주는 1926년 12월에 동양척식주식회사 경성 지점과 조선식산은행에 투탄하였고 일본인 7명을 사살한 후 경찰과 교전 끝에 자결하였다.

문 6. 고려 시대 불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통 아래 주통과 군통 등의 승관을 두어 사찰과 승려를 관리하였다.
- ② 요세가 결사한 백련사는 법화신앙을 내세운 천태종 계통의 신앙단체였다.
- ③ 균여는 북악의 법손(法孫)으로서 북악을 중심으로 남악의 사상을 융합하였다.
- ④ 사찰에서는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승병을 양성하기도 하였다.

6. 정답 : ①

① 신라 진흥왕 대의 내용이다. 진흥왕 대에는 국통(승통)·주통·군통을 정비하여 사상적 통합을 도모하였으며, 최초로 고구려 승려 혜량을 국통으로 임명하였다.

고려 광종 대에 승불정책을 바탕으로 국사·왕사 제도가 확립되었고 최초의 왕사에 탄문과 해거가 추대되었다.

② 천태종 승려였던 요세는 만덕산에 백련사(뒤에 만덕사)라는 사찰을 세우고 법화신앙에

중점을 두고 참회를 강조하면서 백련사 결사 운동을 일으켰다.

③ 화엄사종은 후백제건원(後百濟建元)의 복전(福田)이 된 관해와 고려 태조의 복전이 된 희량의 화엄사종을 중심으로 각각 남악과 북악으로 불렸는데 균여는 북악의 범통을 계승하였다. 그리고 다시 남악까지 통합하였다.

④ 고려시대 불교는 사찰에 대한 특권을 바탕으로 상업 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으며,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별도로 승병(僧兵)을 조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승병은 권력 쟁탈전이나 국가 위기 사태 상황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문 7. 다음은 사단칠정에 대한 어느 유학자의 견해이다. <보기>에서 이 유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사단의 발은 순리이므로 선하지 않음이 없고, 칠정의 발은 이기를 겸하였기 때문에 선악이 있다.

○ 사단은 이가 발함에 기가 따른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함에 이가 탄 것이다(理乘之).

- 논사단칠정서 -

ㄱ. 이는 무형(無形)하지만 기는 유형(有形)하므로 이통기국(理通氣局)이라 주장하였다.

ㄴ. 간략한 해설을 곁들인 10개의 도형으로 성리학의 핵심 내용을 집성하여 왕에게 바쳤다.

ㄷ. 형이하의 현실세계를 기의 능동성으로 파악하여 경제적으로는 경장(更張)을 강조하였다.

ㄹ. 도덕적 행위와 근거로서 인간의 심성을 중시하고 근본적이며 이상주의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7. 정답 : ④

제시된 내용은 사단칠정논쟁 당시 퇴계 이황이 주장한 내용에 해당한다. 이황은 전형적인 주리론(主理論)자로서 기대승과의 논쟁과정에서 이기호발설 등을 주장하였다.

ㄴ. 이황은 갓 즉위하여 17세의 국왕이었던 선조가 성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리학의 요체를 가르쳐주고자 10개의 핵심적인 도표로 성리학을 정리한 『성학십도』를 편찬하여 선조에게 올렸다.

ㄹ. 이황은 원리, 원칙이자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이(理)를 중시한 주리론자로서 이존기비, 이귀기천 등을 내세웠다. 즉,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현상인 기(氣)를 천시한 것으로 그의 이러한 학문적 성향은 도덕적 행위의 근거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심성을 중시하고 근본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연결되었다.

ㄱ. 이통기국론은 이의 보편성과 기의 국한성을 언급한 논리로 이이가 주장한 이기론의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ㄷ. 형이하의 현실세계를 기가 변화하는 능동성으로 파악하여 개혁 즉, 경장을 강조한 인물

은 율곡 이이에 해당한다.

문 8.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평통보가 널리 유통되면서 환·어음 등의 신용화폐는 점차 소멸하였다.
- ② 이앙법의 보급으로 직파법에 비해 김매기에 필요한 노동력이 감소하였다.
- ③ 공장안(工匠案)에서 벗어난 납포장이 장인세를 납부하면서 상품생산을 확대하였다.
- ④ 감자·고구마 등의 구황작물과 담배·고추 등의 상업작물이 도입되어 상품 경제가 활성화되었다.

8. 정답 : ①

- ① 조선 후기에는 동전유통이 일반화되고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면서 또한 신용화폐가 널리 유통되었다. 동전은 일정한 중량을 지닌 금속화폐였기 때문에 나귀 1짐바리(駄)에 200냥(동전 2만 개) 정도밖에 싣지 못하는 운반상의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장거리를 오가며 이루어지는 상업활동, 특히 대규모 상거래에서는 동전 대신 ‘환’과 ‘어음’등의 신용화폐가 이용되었다.
- ② 조선 후기 이앙법은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가장 큰 이유로는 적은 노동력으로 넓은 토지를 경작할 수 있다는 점과 단위면적당 생산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장점에 있었다. 광해군 11년(1619)에 펴낸 <농가월령>에 의하면 “벼를 재배하는 데는 보통 4차례의 제초작업을 실시하는데, 이앙법을 실시하면 2차례만 실시하면 된다”고 적혀 있는데, 이처럼 이와 같이 이앙법을 실시하면 노동력이 감소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앙법은 전국적으로 빠르게 보급되었다.
- ③ 조선 후기에는 장인세만 부담하면 비교적 자유롭게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민간 수공업자(납포장)가 증가하였다. 그들의 제품은 품질과 가격 면에서 관영 수공업장에서 만든 제품에 비해 경쟁력도 높았다.
- ④ 조선 후기에는 일본에서 고구마, 청으로부터 감자 등의 구황 작물이 전래되었고, 담배와 고추 등의 상업작물이 전래되어 재배되었다.

문 9. 밑줄 친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부는 제헌 헌법에 의거하여 1949년 6월 21일 법률 제31호로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하는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것을 통하여 농가경제 자립과 농업생산력 증진으로 인한 농민 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도모하였다.
--

- ① 귀속농지의 관리 기구인 신한공사를 해체하였다.
- ② 호당 3정보 이하 농지는 매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③ 3정보 이상의 농지로 이미 매도된 경우 개혁에서 제외하였다.
- ④ 매수된 농지의 지주에게는 연평균 수확량의 150%를 5년간 나누어 보상하도록 하였다.

9. 정답 : ①

해설 : 제시된 자료의 밑줄 친 ‘개혁’은 대한민국 수립 이후 1946년 6월 제정되고, 1950년

3월에 공포된 '농지개혁법'을 말하고 있다.

- ① 신한공사는 미군정청이 몰수한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 재산과 일본인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인 1948년 3월 해체되었다.
- ② 농지개혁법 제6조에는 농가로서 자경 또는 자영하는 일가당 총면적 3정보이내의 소유농지에 대해서는 매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 ③ 농지개혁 실시 당시 지주들은 토지분배 하한선인 3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소유권을 위장 분산시키거나 소작농에게 강제로 고가에 매각하는 등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3정보 이상의 토지가 개혁 대상이었다 할지라도 이미 매도된 경우에는 개혁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 ④ 농지개혁은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농민들은 토지 평년 수확량의 30%씩, 5년간 총 150%를 국가에 상환하고, 국가에서는 매수된 농지의 지주들에게 이를 나누어 보상하였다.

문 10. 다음 회담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2 의제 : 전투 행위를 정지한다는 전제 아래 양측 군대 사이에 비무장 지대를 설치하고자 군사분계선을 정하는 일
... (중략) ...
제5 의제 : 외국 군대의 철수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관해서 쌍방 관련 국가의 정부에 권고하는 일

- ① 개성과 판문점 등지에서 회담이 진행되었다.
- ② 공산군 측은 38도선을 경계로 휴전할 것을 요구하였다.
- ③ 유엔군 측은 제네바 협정에 따른 포로의 자동송환을 주장하였다.
- ④ 쌍방은 소련을 제외한 4개국 중립국 감시위원회의 구성에 합의하였다.

10. 정답 : ③

제시된 자료는 6·25 전쟁 휴전 회담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제2 의제는 군사분계선 설정에 관련하여 진행된 회담 내용이며, 제5의제는 전후 한반도 평화 진전에 관한 회담 내용을 말하고 있다.

③ 북한이 주장한 내용이다. 북한은 정전회담에서 제네바 협정에 따라 전원 자동송환을 주장했고, 미국은 제네바 협정을 거부하고 자유송환을 주장하였다.

① 첫 정전 회담은 1951년 7월 10일 개성(開城)에서 열렸고, 이어 1952년 7월 개성에서 본회의가 시작되어 같은 해 10월 판문점으로 회담 장소를 옮겼으나 전쟁 포로 문제 등이 난제로 걸리면서 회담은 중지되었다.

② 정전회담 때 공산군측 수석대표는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확정하고 쌍방의 무장부대는 동시에 38도선에서 10km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휴전 협정으로 인해 남북한 사이에는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이 설치되었다. 또 국제연합군과 공산군 장교로 구성되는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가 판문점에 설치되고, 스위스·스웨덴·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로 구성된 중립국 감시 위원단이 설치되었다.

문 11. 우리나라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덕천 승리산 동굴에서 화석 인골이 발견되었다.
- ② 부산 동삼동 패총에서 조와 기장이 수습되었다.
- ③ 연천 전곡리 유적에서 유럽 아슐리안 계통의 주먹도끼가 출토되었다.
- ④ 서울 암사동에서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는 바닥이 납작한 평저(平底)를 특징으로 한다.

11. 정답 : ④

④ 빗살무늬 토기는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로, 달걀 모양의 뽕족한 밑 또는 둥근 밑 모양을 하고 있으며, 빗살무늬가 새겨져 있다.

① 평남 덕천 승리산 유적은 구석기 시대의 유적으로 4층에서 동굴 하이에나·큰쌍코뿔이 등의 더운 동물화석과 함께 슬기사람 계통의 ‘덕천사람’ 이빨과 하악골(빗장뼈)이 출토되었다. 또한 5층에서는 슬기슬기사람 계통의 ‘승리산 사람’ 아래턱이 출토되었다.

② 신석기 시대의 부산 동삼동 유적에서 발견된 토기 표면에는 기장과 조에 눌린 자국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통해 신석기 시대에 기장과 조 같은 잡곡이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연천 전곡리 유적에서는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출토되었다. 이곳에서 출토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는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발견된 것으로 유럽과 아프리카에 한해 있었던 기존 학설을 뒤집는 중요한 발견이었다.

문 12. 발해와 관련된 다음의 역사적 사실들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
|---|
| ㄱ. 당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고 불리었다.
ㄴ. 야율아보기에 의해 흘한성이 포위되었다.
ㄷ. 중경현덕부에서 상경용천부로 도읍을 옮겨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ㄹ. 당과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여 처음 통교하였다. |
|---|

- ① ㄷ → ㄴ → ㄹ → ㄱ
- ② ㄷ → ㄹ → ㄱ → ㄴ
- ③ ㄹ → ㄷ → ㄱ → ㄴ
- ④ ㄹ → ㄷ → ㄴ → ㄱ

12. 정답 : ③

ㄹ. 발해 무왕 대의 사실이다. 발해 무왕은 727년(무왕 9)에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여 통교하였는데, 이를 통해 발해는 신라와 당나라 사이에서 국제적으로 고립된 정세를 벗어나고 동시에 견제하고자 하였다.

ㄷ. 발해 문왕 대의 사실이다. 756년 수도를 중경 현덕부에서 북쪽의 상경 용천부로 옮겼다.

ㄱ. 발해 선왕 대의 내용이다. 이 시기 발해는 국가적 중흥기로서 당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ㄴ. 발해 마지막 왕 대인선(애왕) 대의 사실이다. 발해는 서쪽에 있던 거란 태조 야율아보기

의 집락을 받아 926년에 멸망하였다. 흘한성은 당시 발해의 수도를 말한다.

문 13. 다음을 주장한 실학자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

무릇 1여(閭)의 토지는 여민이 함께 농사하고 경계를 나누지 않는다, 여장은 매일 개개인의 노동량을 장부에 기록하여 두었다가 가을이 되면 수확물을 여장의 집에 가져온 다음에 분배한다. 이때 국가에 바칠 세와 여장의 봉급을 제하며 그 나머지를 가지고 노동일수에 따라 여민(閭民)에게 분배하도록 한다.

- ① 박제가와 함께 종두법을 연구하고 실험하였다.
- ② 이익의 역사의식을 계승하여 『동사강목』을 저술하였다.
- ③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무한우주론을 내놓았다.
- ④ 『북학의』를 저술하여 청의 문물을 적극 수용하고자 하였다.

13. 정답 : ①

제시된 자료는 정약용의 '여전론'에 대한 내용이다. 여전론에서는 30가구를 마을 단위의 공동 농장 제도인 1여(閭)로 하여 여민은 여장(閭長)의 감독 아래 공동 노동을 통해서 생산과 수확을 하고, 노동량에 따라서 수확량을 분배하고자 하였다.

- ① 정약용은 박제가와 함께 마진을 예방하기 위한 종두법을 연구하여 실험하기도 하였다(종두방서).
- ② 안정복에 대한 내용이다. 안정복은 이익의 제자로서 이익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여 우리 역사의 독자적 정통론을 세워 이를 체계화하여 종래 중국 중심의 역사 인식을 탈피하였다.
- ③ 홍대용에 대한 내용이다. 홍대용은 『의산문답』에서 지전설을 주장하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무한 우주론을 내놓았다.
- ④ 박제가에 대한 내용이다. 박제가는 『북학의』를 저술하여 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제창하였다.

문 14. 대한제국 시기에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① 전등이 켜진 경복궁
- ② 한성순보를 읽는 관리
- ③ 종로 일대를 달리는 전차
- ④ 광제원에서 치료받는 환자

14. 정답 : ②

대한제국은 1897년부터 1910년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고르는 문제이다.

- ② 한성순보는 1883년 발간되어 갑신정변(1884) 때 폐간된 초기의 신문이다.
- ① 경복궁의 전등은 1887년 처음으로 점등이 되었고, 이후에도 사용되었기에 맞는 내용이다.
- ③ 미국인 콜브란과 황실이 공동으로 한성 전기 회사를 설립한 후(1898), 1899년에 서대문에서 청량리를 잇는 전차를 운행하였다.

④ 광제원은 1899년 정부 출자 의료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문 15. 일제강점기 식민사학을 비판한 연구 경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인보는 5천년간의 조선 역사를 강조하였다.
- ② 신채호는 조선상고사를 연재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 ③ 진단학회는 개별 역사적 사실의 이해를 확고히 하는 실증사관을 중시하였다.
- ④ 청구학회는 조선과 만주의 역사를 일원적으로 파악하는 만선사관을 견지하였다.

정답 : ④

④ 청구학회는 1930년 5월 조선총독부와 경성제국대학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단체로 조선사편수회와 더불어 대표적인 식민사학 단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식민사학을 비판한 연구경향으로 볼 수 없다. 문제 내에 언급된 만선사관은 정체성론, 타율성론, 당파성론, 내선일체론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일제의 식민사관에 해당한다.

- ① 민족주의 사학자인 정인보는 민족정신으로 5천년간 조선의 역사를 강조하였으며 『조선사연구』 등을 편찬하였다.
- ② 민족주의 사학자인 신채호는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와의 투쟁으로 표현하였으며 『조선상고사』, 『조선사연구초』 등을 저술하였다. 또한 의열단의 강령인 『조선혁명선언』을 저술하기도 하였다.
- ③ 진단학회는 1934년 이병도, 손진태, 조운제 등이 식민사학 단체였던 청구학회에 반발하여 조직된 단체로 개별적인 역사 사실의 이해를 중시하는 실증 사관을 중시하였다.

문 16. 밑줄 친 ‘왕’ 대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왕이 죽기 전에 여러 신하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어떻게 해서 모란꽃에 향기가 없고, 개구리 우는 것으로 변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왕이 대답했다. “꽃을 그렸는데 나비가 없으므로 그 향기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이것은 당나라 임금이 나에게 짝이 없는 것을 희롱한 것이다.”

- 삼국유사 -

- ① 『국사』를 편찬하였다.
- ② 영묘사를 건설하였다.
- ③ 향가를 모아 『삼대목』을 편찬하였다.
- ④ 오언태평송(五言太平頌)을 지어 당에 보냈다.

정답 : ②

문제의 밑줄 친 왕은 선덕여왕(632~647)에 해당한다.

- ② 영묘사는 신라의 칠처가람(七處伽藍)의 하나로, 원래 큰 연못이었는데 선덕여왕 때 두두리(頭頭里)라는 귀신의 무리가 하룻밤 사이에 못을 메우고 창건한 절로 알려진 곳이다. 창건 후 이 절에서 개구리가 3~4일 동안 계속해서 운다는 소식을 듣고 백제의 복병이 여근국

(女根谷)에 숨어들었음을 감지했다는 일화로도 잘 알려져 있다. 현재에는 절터만이 존재하고 있다.

① 『국사』는 진흥왕 때 이사부의 건의에 따라 집필되기 시작한 역사서로 거칠부에 의해 편찬되었다.

③ 『삼대목』은 신라 말 진성여왕이 각간 위홍과 대구화상에 명하여 편찬하게 한 향가집에 해당한다.

④ 오언태평송은 신라 진덕여왕이 650년 당시 당나라의 황제였던 고종에게 보낸 오언 고시로 당나라의 태평성대를 기리는 내용의 작품을 말한다. 이는 신라가 당나라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지은 것이었다.

문 17.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올리면서 고려 초기 다섯 왕의 치적을 평하였다. 그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태조는 후한 덕과 넓은 도량으로 후삼국을 통일하였고 절약과 검소함을 숭상하여 궁궐이나 의복에 도를 넘지 않았다.

② 혜종은 즉위 초에는 평판이 좋았는데 점차 사람을 의심함이 지나쳐 임금된 체통을 잃었다.

③ 정종은 왕규를 처단함으로써 왕실을 보전하였고, 서경천도를 강행함으로써 백성들에게서 원성을 샀다.

④ 광종은 아랫사람을 예로써 대접하였고, 쌓기를 등용한 후부터 현명한 인재를 얻어 중화의 좋은 법을 성취하였다.

정답 : ④

④ 최승로는 성종에게 시무 28조와 함께 5조 정적평을 올렸는데 그 중 특히 광종에 대해서 비판하였다. 특히, 그는 광종이 즉위 이후 8년 동안은 정치의 교화가 맑았으나 쌓기가 등장한 이래로 문사를 높여 재주없는 자를 등용하였고 또한 정사를 게을리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더불어서 그는 광종을 중국의 풍속만 중시하고 중국의 선비만 대우한 것은 물론 많은 공신들을 숙청하였다고 비판하였다.

① 최승로는 태조에 대하여 세상의 어지러운 혼란을 종식하고 삼한의 옛 땅을 통일한 것은 물론 절약하는 동시에 많은 백성들을 포용한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② 최승로는 혜종에 대하여 초기에는 여러 사람들의 참언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등 평판이 좋았으나 이후에는 덕을 닦지 않고 여러 사람을 의심함으로써 민심을 잃었다고 지적하였다.

③ 최승로는 정종에 대하여 혜종 때 발생한 왕규의 난을 진압함으로써 왕실을 보전하였다고 하였으나 도참설을 잘못 믿어 서경 천도를 강행함으로써 백성들의 원성을 얻었다고 비판하였다.

문 18.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수많은 우리 문화재를 훼손하였는데 남산도 예외가 아니었다. ㉠장충단을 공원화하고 그 동쪽에다 이토 히로부미를 기념하는 박문사를 세웠다. 거기에는 ㉡경복궁을 훼손하여 여러 부속 건물을 가져다 놓았고, ㉢원구단에 있던 석고전을 종각으로 변조하였으며, ㉣경희궁의 정문인 홍화문을 헐어서 정문으로 삼았다.

- ① ㉠ - 숙종 때 명나라 신종을 제사하려고 지은 사당이였다.
- ② ㉡ - 세종 때 만든 보루각과 간의대가 있었다.
- ③ ㉢ - 을미사변 때 죽은 이경직과 홍계훈 등 충신·열사의 넋을 기리는 제단이였다.
- ④ ㉣ - 역대 임금의 초상을 봉안하던 선원전이 있었다.

정답 : ②

② 보루각은 세종 대인 1434년 장영실이 만든 자격루를 표준시계로 삼아 경복궁 내의 설치해 둔 전각을 말한다. 세종은 당시, 이와 더불어서 경복궁 내 경회루 북쪽에 높이 31자, 너비 32자, 길이 47자의 큰 규모의 천문관측대인 간의대를 설치하였다.

① 숙종 때 명나라 신종을 제사하려고 지은 사당은 창덕궁 내의 대보단에 해당한다. 장충단은 1900년 을미사변과 임오군란 당시 순국한 충신과 열사를 제사지내던 제단이였다.

③ 원구단(환구단)은 1897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로 즉위하기 위해 쌓았던 제천단에 해당한다. 즉, 천자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든 둥근 모양의 제단이 바로 원구단이다.

④ 역대 임금의 초상인 어진을 봉안하던 선원전은 경희궁(경덕궁)이 아닌 창덕궁 내에 있었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海東韓國史

문 19.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이 원인이 되어 체결된 조약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해청 당상관 민겸호의 하인이 선해청 창고에서 군량을 내꼈다. 이때 하인이 쌀을 벼 껍질과 바꾸어 이익을 챙기자 많은 군인이 분노하여 하인을 때려눕혔다. 민겸호는 주동자를 잡아 포도청에 가두고는 곧 죽여 버리겠다고 하니 군인들은 분기하여 포도청과 경기 감영을 습격하였다.

- ①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의 유통을 허락한다.
- ② 일본 공사관에서 경비병의 주둔을 허락한다.
- ③ 양화진에서 청국 상인의 통상을 인정한다.
- ④ 조선에서 청국 상무위원의 영사재판권을 인정한다.

정답 : ①

제시된 자료와 관련한 사건은 임오군란(1882. 6)에 해당한다. 이 사건이 원인이 되어 체결된 조약은 제물포 조약(1882. 7. 17)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1882. 8. 23)이다.

①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의 통용을 허가한 조약은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 체결 직후 체결된 부속조약인 조일수호조규 부록에 해당한다. 조일수호조규 부록에서는 일본화폐 통용과 더불어 개항장을 중심으로 간행이정 10리 및 일본 외교관의 여행 자유 등이 규정되었다.

②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 주둔권을 허용한 조약은 제물포 조약에 해당한다.

③, ④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 규정된 내용에 해당한다.

문 20. ㉠,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사 : (㉠)은/는 힘이 없는 조선이 망하지 않도록 일본이 보호하자는 조약이지 않은가? 그러니 초대 통감을 죽인다고 (㉡)이/가 폐지되겠는가?
안중근 : (㉠)은/는 우리 황제를 협박해 강제로 체결된 것이며, 그 늑약으로 (㉡)이/가 설치된 이후 우리 백성들이 더 많이 학살되고 있다.

- ① ㉠에 반발하여 민중식, 최익현 등이 의병을 일으켰다.
- ② ㉠에 대하여 장지연은 논설 '시일야방성대곡'으로 비판하였다.
- ③ ㉡의 설치는 보안회가 결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④ ㉡을 통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였다.

정답 : ③

문제 내의 ㉠은 을사조약(제 2차 한·일협약, 1905, 11, 17.) ㉡은 통감부(1906.2 창설)에 해당한다.

③ 보안회는 1904년 7월에 일제의 조선에 대한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대항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조직된 애국계몽운동 단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안회 창설은 을사조약 체결 이전의 사실에 해당한다.

① 을사조약이 체결된 직후 민중식과 최익현, 신돌석 등은 을사의병을 일으켰다.

② 을사조약이 체결된 직후, 황성신문의 주필이었던 장지연은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논설을 게재함으로써 조약 체결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비판하였다.

④ 일제는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대한제국의 외교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게 하였다. 당시 을사조약을 강압적으로 체결하는 것을 주도한 이토 히로부미는 초대 조선 통감으로 부임하였다.